

# 영광군, 농업분야 사업설명회…259개 사업·1천157억 원 규모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일선에서 농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농축협 및 농업 관련 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분야 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2024년도 농업분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어민 공익수당,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농업·농촌 복지증진, 쌀 적정생산 및 농업정책보험 가입확대, 원예생산 기반 유지·확대 등 농업생산기반

확대, 농가 경영안정과 농산물 판매확대 및 학교급식 등 공공조달체계 구축 등 농업유통과 소관 120개 사업과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조사료 생산 확충 및 가축전염병 대응 방역 사업 등 축산식품과 소관 89개 사업, ▲ 귀농·귀촌 및 청년농업인 육성과 신소득작물 발굴 지도·시범 사업 등 농업기술센터 소관 50개 사업 등 총 259개 사업, 1천157억 원의 농업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신

규·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기간 내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전략작물 직불제' 품목 확대(두류, 식용 옥수수 추가), '기본형 공의 직불제'의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120만 원→130만 원) 및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지원 및 축종 확대(염소 추가) 등 변경되는 시책과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탄소중립 시범 및 TMR사료 배합기 지원 등 신규로 추진되는 시책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신규·변경 시책에 대한 설명회 참석자들에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

강종만 군수는 "앞으로도 변화의 중심에서 농업·농촌이 열린 기회의 공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첨단 기술과 융합해 전후방산업을 육성하며 우리 군이 가진 자원과 강점을 활용해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파격적이고 공세적인 농업정책으로 대전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경률 기자

## 담양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제10기 담양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다.

제10기 담양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는 공공위원장 이병노 담양군수를 포함해 사회보장시설·기관대표, 공익단체 대표, 학계, 보건의료, 교육, 주민대표 등 분야별 사회보장 범주를 균형 있게 추천한 민간위원, 업무 담당자 중 16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대표협의체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담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타 사회보장 관련 사항 등을 심의·자문한다.

또한 올해 시행하는 '담양군 향촌돌봄 지원 조례'에 근거한 향촌돌봄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진 회의에서 월산교회 김형규 목사가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형규 위원장은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진성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의료취약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근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도내 인구소멸 지역 16개 군을 방문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 화순군,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 운영

### 맞춤형 의료 제공…의료취약지역 주민 호응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의료취약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근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도내 인구소멸 지역 16개 군을 방문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진료는 한천면 결우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화순군보건소 마을 주치의 사업과 연계해 공중보건의사, 간호인력 등 10명이 혈압·혈당 등 기초 검사와 의과·치과·한의과 진료를 제공했다.

특히, 치아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치간

칫솔 사용법을 안내하고 틀니 관리 요령 등 의료상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의료취약계층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군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 나주,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 합류

나주시가 전 세계적인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이자 도시 간 약속인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에 합류했다.

시에 따르면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MUFPP, Milan Urban Food Policy Pact)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발전과 소비 불균형 문제 해소, 건강한 식생활 증진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체결된 국제 협약이다.

협약 주체들이 국가나 중앙정부가 아닌 '도시' 단위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의 주체가 지방정부임을 강조한다.

현재 뉴욕, 파리, 런던, 서울 등 세계 80개국, 270여 도시가 등록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6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정책협약 합류를 계기로 세계 각국 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농촌 전략, 먹거리 불평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공공재로서의 먹거리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철 기자

특히 수시 개최되는 지역 포럼인 '아시아·태평양권역 포럼'과 2년 주기로 열리는 글로벌 포럼인 '밀라노 어워즈'에 참석해 나주시의 우수 먹거리 정책들을 소개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에 기반한 로컬푸드직매장, 나주 밤상 지정업소 운영, 공공·학교급식 물류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업 등 민선 8기 주요 농정 발전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밀라노 먹거리 정책협약 합류를 통해 세계 각국 도시들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전략을 공유하고 우수한 지역 먹거리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농식품부가 주최하는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상에 이어 지난해 대상에 해당하는 S등급을 획득했다. /김동철 기자

## 장성,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 응자 신청

내달 13일까지…전입 5년 미만·65세 미만 귀농인

장성군이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응자 신청을 2월 13일까지 받는다.

농업창업자금은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이자 1.5% 내외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가구당 최대 7천5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조건은 농업창업자금과 같다.

신청 대상은 △65세(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세대주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이다.

장성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 종사자가 아닌 주민은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내 농업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 한해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유광종 기자

귀농 희망자는 △올해 전입 예정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 전 사업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승인된다. 융자도 사업 신청 당해에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금은 신용, 담보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되며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2월 13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농업 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061-390-7180, 71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광종 기자

